

자영업 부문 여성 종사자 노동공급 및 소득분포*1)

고 영 우**2)

본 연구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비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그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를 소득분위별로 추정해보았다. 이상의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학술대회용) 자료를 이용하였다. 첫째,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근로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히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의 차이를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보다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근로형태별로 지원수단 및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가구내 근로형태의 조합 및 그에 따른 가구소득총액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한다.

주요용어 : 비임금근로, 무급가족종사자, 소득분포,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대안으로서 자영업 선택을 둘러싼 요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을 횡단면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어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내 성별 소득분포의 차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영업 선택요인에 대한 횡단면 분석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추정함으로써, 현재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자영업 취업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태적 분석은 자영업 선택에 관해 많은 함의를 제공하지만, 자영업으로의 개인의 진입과 퇴출이라는 상태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에서 자영업인

* 본 논문은 김근주 외(2019, 발간예정)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중 제3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횡단면적 측면에서의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횡단면 분석은 자영업 비중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자영업 선택결정모형을 다루고 있다. 자영업 비중의 현재 상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영업으로의 진입, 지속, 탈출 등의 동태적 변화가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면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과거로부터 축적된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들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진입 및 탈출요인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여성의 자영업 진입·탈출 결정요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의를 갖는다.

개인의 근로소득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특히 자영업자와 임금근로간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근로소득은 자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혹은 자영업을 그만둘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횡단면 분석에서의 결과를 기초로 자영업 탈출 결정요인 분석의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아울러, 근로형태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분포의 차이,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소득분포 차이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자영업 선택요인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III장에서는 여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IV장에서는 비임금근로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격차를 분위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방향 등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인가의 결정과 함께 어떤 취업형태로 참가할 것인가의 이슈는 노동경제학의 고전적인 연구주제이지만 자영업 선택에 관한 분석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다. 자영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자영업과 임금근로 간의 선택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출산 및 육아와 같은 경력단절 요인과 자영업 선택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금재호 외(2009)는 출산 및 미취학아동의 보육이 남녀의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여성의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그것이 여성의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분석방법을 미국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근로자의 성별이 자영업 종사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으나, 여성이면서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영업 종사확률을 7%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보다는 근로시간이 유연한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7세 이하 자녀가 1명 증가할수록 자영업 종사확률이 4.5% 증가하였는데, 자녀의 나이를 세분한 결과, 남성은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3세에서 7세 이하 자녀 유무가 자영업 종사확률을 10.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동일한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이로써 자영업으로의 진입은 여성에게 노동공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유연노동공급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특히 미취학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금부문보다는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영업 종사를 선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들에 따르면 미취학 출산육아기의 자녀를 둔 임금부문 여성근로자의 유연노동공급은 미국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더 제한적이며,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생애경력단절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출산·육아가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류재우(2004)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 기간 동안 자영업 비중의 증가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자영부문 취업비중 증가는 이 부문에서의 (상대적인) 소득기회의 증가에 있으며 이와 함께 자영부문을 선택한 자들의 평균 능력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과 분포의 변화, 임금결정요인의 변화, 신규진입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자영업 부문은 소득수준, 소득 분산 등의 면에서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표본기간동안 증대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영자의 숙련수준과 관련해서는 음(-)의 선택성이 지속적으로 축소 또는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 없이 일어났으며 이는 자영업 취업자 비중 증가가 임금부문에서의 소득기회 감소라는 방출요인보다는 자영부문의 흡입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전병유(2003)는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 선택의 추정치를 얻고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방법에 따라 이들 추정치에서 경제활동참가와 자영업선택에 관한 inverse Mill's ratio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자영업과 임금근로자의 소득함수를 추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선택에 따른 선택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단계에서 구해진 선택에 관한 편의항을 2단계 소득함수 추정에서 사용하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얻어진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선택에 따른 소득 기회의 차이를 자영업 선택의 구조모형에 포함시키게 된다. 분석 결과, 학력이나 직업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실업률과 자영업의 선택 간의 관계는 대체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이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미(2002)는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이 자영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주/자영자 및 18시간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1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연결하여 1차년도(1998년)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기간경과를 통해 노동공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노동시장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 자녀의 존재와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여부는 여성의 취업 선택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지만 자영업선택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과 어린 자녀수의 증가는 노동시장 퇴장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지만 근로시간 감축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고, 자영업은 노동시장 퇴장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요인이었지만 근로시간 감축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 여성이 임금근로 여성과 비교하여, 기간경과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은 낮지만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선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검토된 기본적인 요소들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횡단면 측면에서 자영업 선택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일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자영업 선택의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금재호 외, 2009; 김기승, 2006; 전용석·김두순, 2004; 성지미, 2002; 문유경, 2002).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영업 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재호 외, 2009; 류재우·최호영, 1999). 본 장에서는 이처럼 인구학적 변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여지는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령이나 학력, 혼인상태 등의 효과를 성별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금재호 외(2003, 2009), 성지미(2002)에서는 미취학 자녀 유무를 모형에 넣어 여성의 자영업 선택은 여성에게 노동공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유연노동공급(flexible labor supply)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자녀 양육 등 일·가정양립 부담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7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무를 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문유경(2002)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자영업 선택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하여, 금재호 외(2009)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 선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에 따른 자영업 선택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월평균 생활비를 사용하여 본인의 자영업의 선택이 가구의 경제수준에 의존하는 정도가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처럼 미취학 자녀의 존재와 가구 경제 수준이 여성의 자영업 진입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횡단면 분석에서의 결과를 기초로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가설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여성이 기혼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인생의 절반 이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의 존재가 여성에게 생산성 저하와 차별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모성임금 패널티가 성별임금격차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몇몇 연구들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간의 시간분배에 근거하여 결혼 및 자녀양육과 기혼여성 자영업주의 시간당 근로소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Fields, 1987; Hundley, 2000). 이 중 자영업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에 초점을 둔 Hundley(2000)의 연구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결혼 및 자녀양육 등으로 가정생산에 대한 시간요구가 증가할 때 보다 용이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시간 가용성 정도에 따라 소득

의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Hundley(2001)의 연구에서는 가정생산시간과 시장근로시간의 상호교환을 분석하면서 자영업에서의 근로시간 유연성은 가정생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때 시장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생산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로 인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영업여성의 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영업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근로시간의 조정이 보다 유연한 기혼 자영업여성의 경우 자영업 남성과는 달리 결혼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족의 크기 또는 가족구성의 변화가 있을 때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의 소득격차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김복순(2014)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 가구의 소득 및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 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의 소득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영업인 가구는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처분가능소득 수준이 낮고, 남성 자영업 가구주와 남성 임금근로 가구주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자영업 가구주와 임금근로 가구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처분가능 소득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자영업과 상용직간의 소득격차가 약 20%가량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최강식 외(2005)의 연구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임금근로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를 월 소득으로 산정하여 분석한 경우 자영업 여성의 소득이 임금근로 여성보다 낮은 반면,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경우 자영업 여성의 소득이 임금근로 여성의 소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의 자영업자 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강식·정진화(2004) 연구에서도 시간당 근로소득이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높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부문 간 소득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간 소득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가격 차이) 이상으로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소비자 차별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차이가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상위직종일수록 차별이 줄어들어 임금근로와 달리 자영업에서는 직업에 관계없이 상당한 정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III. 여성의 자영업 선택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자영업(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과 비자영업(임금근로자 + 미취업자)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이항로짓모형을 먼저 분석하고,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분리), 임금근로, 미취업 간의 선택을 다룬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한다. 다항로짓분석을 시도하는 주요 이유는 자영업 내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 선택에 대한 이질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 분석방법

가. 이항로짓모형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y_i^* = \beta_0 + \sum_{j=1}^k \beta_j x_{ij} + \varepsilon_i \quad (1)$$

여기서 y_i^* 는 개인 i 가 자영업 선택시 받을 수 있는 평생수익의 현재가치와 임금근로 선택시 받을 수 있는 평생수익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의미하며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이다. 관찰되는 것은 자영업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y_i 이다. y_i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_i = \begin{cases} 1 & \text{if } y_i^*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2)$$

본 연구에서 사용될 구체적인 로짓(logit)모형은 다음과 같다.

$$SelfEmp_i = \alpha_0 + \sum_{j=1}^k \alpha_j x_{ij} + \varepsilon_i \quad (3)$$

여기서 $SelfEmp$ 는 자영업 취업자 여부이며, x_j 는 분석에 포함되는 설명변수들을 의미한다. 설명변수에 포함되는 변수들에 따라서 크게 3가지 분석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모형(1)은 기본 모형으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년수 등 지금까지 자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학적 변인들을 설명변수로 구성한다. 모형(2)에서는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 및 가구내 환경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6세 미만 자녀수, 6~18세 자녀수, 월평균 생활비, 배우자 소득 등의 변수를 추가하고, 모형(3)에는 일자리 관련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 직업, 근속년수 등의 변수를 추가한다. 여기서 모형(3)의 경우에는 대조집단이 미취업자는 제외된 임금근로자로 한정된다.

나. 다항로짓모형

로짓모형의 종속변수를 셋 이상의 반응범주의 경우로 확장한 것이 일반화 로짓모형이다. 이 때 반응범주가 명목형(nominal type)인 경우와 순서형(ordinal type)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다항로짓모형이라고 한다.

로짓모형(식 4)과 일반화 로짓모형(식 5)의 차이를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g \frac{P(Y=1 | x)}{P(Y=2 | x)} = \beta_0 + \beta_1 x \quad (4)$$

$$\log \frac{P(Y=j | x_1, \dots, x_p)}{P(Y=J | x_1, \dots, x_p)} = \beta_{0j} + \beta_{1j}x_1 + \dots + \beta_{pj}x_p \quad (5)$$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나누고, 미취업자 및 임금근로자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추정 결과는 참조집단에 대비하여 각 취업형태집단의 확률 비율로 해석하게 된다. 독립변수는 기본적으로 이항로짓모형과 같다.

2. 분석자료

본 분석에서는 취업과 자영업 선택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한다. KLIPS는 가구의 소득자료와 가구구성원의 인적특성에 관한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의 인적특성 및 고용상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국규모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이상호 외, 2014), 본 연구와 같은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원자료 가운데 만 64세 이하의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총 표본수는 11,053명(남성 5,506명, 여성 5,547명)이다. 이 중 미취업자가 분석에서 제외될 경우, 총 사례수는 7,243명(남성 4,228명, 여성 3,015명)이 된다. 여성 취업자의 자영업 선택요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취업자의 자영업 선택요인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비임금근로자 여부이다. 즉,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자, 무급종사자)이면 1, 아니면(임금근로자, 미취업자) 0의 값을 갖는 이산변수가 기본으로 사용되며, 일자리의 특성이 통제된 모형(3)에서는 비교집단에서 미취업자가 제외된다. 다항로짓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종사상지위에 따른 범주형 변수(미취업자=1, 임금근로자=2, 고용주 및 자영자=3, 무급가족종사자=4)로 정의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비임금근로자 여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이면 1, 아니면(임금근로자, 미취업자) 0
	종사상지위	4개의 범주(미취업자 / 임금근로자 / 고용주 및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설명변수 모형(1)	연령	만 나이
	연령제곱	만 나이의 제곱값
	교육수준	4개의 범주(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로 구분
	혼인상태	3개의 범주(미혼 / 유배우자 / 이혼·사별)로 구분
	거주지역	6개의 범주(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강원제주권)로 구분
	잠재경력년수	= 만 나이 - 교육년수 - 6
	잠재경력년수 제곱	잠재경력년수의 제곱값
모형(2) 추가	6세미만 자녀수	6세 미만 자녀의 수
	6~18세 자녀수	6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의 수
	월평균 생활비	가구의 지난 해 월평균 생활비(로그 만원)
	배우자 소득	배우자의 월소득(로그 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0
모형(3) 추가	산업	7개 범주(농림어업 / 광공업 / 유통서비스업 / 생산자서비스업 / 사회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 기타)로 구분
	직업	5개 범주(관리·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판매직 / 생산직 / 단순노무직)로 구분
	근속년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년)
	근속년수 제곱	근속년수의 제곱값

- 주: 1)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하며, 임금근로자는 상용 + 임시 + 일용근로자를 의미함.
- 2)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권은 강원·제주를 의미함.
- 3) 표준산업분류(9차개정) 대분류 기준으로, 농림어업은 A(농림어업), 광공업은 B(광업) + C(제조업), 유통서비스업은 G(도매 및 소매업) + H(운수업), 생산자서비스업은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K(금융 및 보험업)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은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P(교육서비스업) +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U(국제 및 외국 기관), 개인서비스업은 I(숙박 및 음식점업)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기타는 나머지 산업부문을 의미함.
- 4) 표준직업분류(6차개정) 대분류 기준으로, 생산직은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을 의미함.

3. 분석결과

〈표 2〉는 미취업 및 임금근로 대비 자영업 선택에 대한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연령은 비임금근로 선택에 주요한 요인이 아닌 반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 선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남성 미혼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임금근로 선택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여성의 혼인상태는 자영업 선택확률에 차이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다른 지역 거주 여성의 자영업 선택확률이 지역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는 남녀 모두 자영업 선택확률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의 월소득 증가는 남성의 경우에만 자영업 선택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녀수는 성별에 상관없이 비임금근로 선택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가구의 특성들이 통제된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자영업 선택요인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 비자영업자 대비 분석결과

종속변수: 비임금근로 여부 (미취업/임금근로=0)		남성		여성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연령		0.098	0.141	0.694***	0.758***
연령제곱		-0.001	-0.002*	-0.006***	-0.007***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032	0.006	-0.224	-0.244
	전문대졸	-0.03	-0.049	-0.478*	-0.595**
	대졸이상	-0.181	-0.234	-0.567	-0.637*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699***	0.846***	-0.246	-0.084
	이혼/사별	0.470**	0.490**	-0.387*	-0.211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112	0.147	0.470***	0.505***
	호남권	0.03	0.095	0.549***	0.590***
	대경권	0.012	0.035	0.254*	0.271*
	동남권	-0.348***	-0.339***	0.282**	0.282**
	강원제주권	0.334*	0.422**	0.533**	0.570**
잠재경력년수		0.123*	0.120*	-0.222***	-0.261***
잠재경력년수 제곱		-0.001	-0.001	0.003***	0.003***
6세미만 자녀수			-0.01		-0.226
6~18세 자녀수			-0.063		-0.083
월평균 생활비			0.396***		0.165*
배우자 월소득			-0.123***		-0.012
상수항		-6.066***	-8.967***	-16.201***	-18.014***
결정계수(Pseudo R ²)		0.131	0.148	0.093	0.097
표본수		5,506	5,315	5,547	5,317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표 3〉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분석결과

종속변수: 비임금근로 여부 (임금근로=0, 미취업 제외)		남성			여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연령		-0.218*	-0.199	0.053	0.415***	0.466***	0.599***
연령제공		0.002*	0.002	-0.001	-0.003***	-0.004***	-0.005***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039	-0.039	-0.053	-0.105	-0.112	0.094
	전문대졸	-0.11	-0.111	-0.103	-0.303	-0.466	0.094
	대졸이상	-0.11	-0.12	-0.096	-0.345	-0.445	0.223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451***	0.673***	0.701***	0.137	-0.025	0.114
	이혼/사별	0.343*	0.373*	0.410*	-0.363	-0.450*	-0.458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58	0.085	0.01	0.379**	0.395***	0.302*
	호남권	-0.007	0.06	-0.275	0.491***	0.507***	0.242
	대경권	0.035	0.05	-0.015	0.281*	0.281*	0.003
	동남권	-0.353***	-0.349***	-0.299**	0.272**	0.276**	0.127
	강원제주권	0.354*	0.444**	0.133	0.770***	0.788***	0.537*
잠재경력년수		0.232***	0.232***	0.112	-0.134	-0.167*	-0.223**
잠재경력년수 제공		-0.003***	-0.003***	-0.001	0.002*	0.002*	0.003**
6세미만 자녀수			-0.063	-0.037		0.118	0.205
6~18세 자녀수			-0.031	-0.034		0.037	0.174**
월평균 생활비			0.266***	0.380***		0.002	0.178
배우자 월소득			-0.119***	-0.091***		0.013	-0.014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3.262***			-3.182***
	유통서비스			-1.923***			-2.219***
	생산자서비스			-2.580***			-2.809***
	사회서비스			-3.470***			-4.071***
	개인서비스			-1.422***			-1.674***
	기타			-3.246***			-2.453***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1.182***			-1.898***
	서비스/판매직			0.829***			-0.177
	생산직			0.026			-0.099
	단순노무직			-0.813***			-2.093***
근속년수				-0.0003			0.053***
근속년수 제공				3.24×10^{-7}			-0.00002***
상수항		0.347	-1.39	-4.355*	-10.566***	-11.414***	-17.060***
결정계수(Pseudo R ²)		0.085	0.099	0.261	0.079	0.081	0.264
표본수		4,228	4,049	4,028	3,015	2,894	2,880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표 3〉은 임금근로 대비 비임금근로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취업자

를 분석에서 제외하여도, 자영업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2)의 추정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 취업자의 학력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앞서 살펴본 결과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자리의 특성이 통제될 경우, 거주지의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산업 및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6~18세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여성 취업자가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 비임금근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제 자영업 내 근로형태에 대한 선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취업자 대비 선택요인을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로 선택요인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미취업자 대비 임금근로 선택에 있어서는 학력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녀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 내에서도 (미취업자 대비) 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하는 것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잠재경력년수가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선택확률에는 통계적 유의도도 낮으며 영향력의 크기도 크지 않게 추정되었다. 자녀수 역시 여성이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이 고용주 및 자영자로 취업하는 확률에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6세미만) 자녀수의 증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하는 확률에는 자녀의 연령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는 여성이 고용주 및 자영자로 취업하는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하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배우자의 월소득 증가는 자영업자로서의 취업확률은 감소시키고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취업확률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취업자를 대비하여 어떠한 형태의 비임금근로자로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결정요인이 그 형태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다항로지모형 분석결과: 미취업자 대비 분석결과

모형(2) (기준: 미취업자)		남성			여성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
연령		0.567***	0.475***	0.429	0.580***	1.149***	0.717**
연령제곱		-0.008***	-0.007***	-0.007**	-0.007***	-0.012***	-0.008***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798***	0.542**	0.727	0.655***	0.159	0.076
	전문대졸	1.650***	1.234***	1.15	1.177***	0.145	-0.036
	대졸이상	1.389***	0.791*	1.019	1.212***	0.316	-0.626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1.412***	2.211***	-1.705**	-0.236	-0.028	-1.137
	이혼/사별	0.819***	1.419***	-15.109	0.374**	0.267	-1.153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305*	0.349*	1.056***	0.164	0.450**	0.853***
	호남권	0.025	0.055	0.861**	0.133	0.686***	0.596**
	대경권	-0.13	-0.056	-0.619	-0.115	0.095	0.401*
	동남권	0.032	-0.279*	-1.173*	0.002	0.315**	0.188
	강원제주권	-0.264	0.091	1.453***	-0.340*	0.1	0.822**
잠재경력년수		0.041	0.190**	0.156	-0.091*	-0.328***	-0.178
잠재경력년수 제곱		0.001**	-0.001	0.001	0.003***	0.005***	0.004*
6세미만 자녀수		1.161***	1.150***	0.749	-0.715***	-0.488**	-0.514*
6~18세 자녀수		0.141	0.126	-0.111	-0.292***	-0.099	-0.419***
월평균 생활비		-0.002	0.420***	0.1	0.08	0.371***	-0.265**
배우자 월소득		0	-0.145***	0.587***	-0.079***	-0.233***	0.574***
상수항		-10.879***	-15.040***	-13.108**	-10.946***	-25.633***	-17.190***
결정계수(Pseudo R ²)		0.285			0.132		
표본수		5,315			5,317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표 5〉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의 형태별 선택요인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미취업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성 취업자의 연령은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산업 및 직업 등 일자리의 특성들이 통제되면,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확률에 거주지 및 잠재경력년수 등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하는 것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던 월평균 생활비 및 배우자의 월소득 등의 요인들은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확률에 대비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것과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주된 요인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성별로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형태에 따라서 고용주 및 자영자로의 취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요인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형태별로 지원수단 및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 다항로지모형 분석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분석결과

모형(3) (기준: 임금근로자)		남성		여성	
		자영업	무급가족	자영업	무급가족
연령		0.046	0.246	0.693***	0.086
연령제곱		-0.001	-0.003	-0.006***	-0.001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075	0.286	0.096	0.292
	전문대졸	-0.112	0.03	0.105	0.47
	대졸이상	-0.101	-0.043	0.451	0.383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852***	-2.977***	0.315	-1.633
	이혼/사별	0.575**	-18.003	-0.293	-2.091*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4	0.683	0.246	0.495*
	호남권	-0.322*	0.474	0.397*	-0.217
	대경권	0.005	-0.712	0.027	-0.094
	동남권	-0.264**	-1.403**	0.179	-0.112
	강원제주권	0.007	1.469**	0.362	0.818*
잠재경력년수		0.124	-0.047	-0.243**	-0.008
잠재경력년수 제곱		-0.001	0.002	0.003**	0.001
6세미만 자녀수		-0.014	-0.288	0.255	0.197
6~18세 자녀수		-0.025	-0.278	0.266***	0.037
월평균 생활비		0.368***	0.431	0.244*	-0.125
배우자 월소득		-0.109***	0.567***	-0.164***	0.778***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3.102***	-4.989***	-2.888***	-3.953***
	유통서비스	-1.734***	-4.114***	-1.385***	-3.397***
	생산자서비스	-2.401***	-4.484***	-1.538***	-5.087***
	사회서비스	-3.347***	-4.492***	-2.773***	-6.908***
	개인서비스	-1.319***	-2.496***	-0.880*	-2.715***
	기타	-3.041***	-21.755	-3.073***	-2.892***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1.200***	-0.947	-3.076***	-0.456
	서비스/판매직	0.810***	1.088**	-0.033	0.178
	생산직	0.062	-0.777	0.406	0.167
	단순노무직	-0.844***	-0.475	-2.175***	-1.230**
근속년수		0.002	2.564**	0.035***	0.088***
근속년수 제곱		0	-0.012**	-0.000***	-0.000***
상수항		-4.874*	-143.997**	-18.550***	-11.967*
결정계수(Pseudo R2)		0.273		0.316	
표본수		4,028		2,880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IV. 비임금근로 부문의 소득분포 분석

자영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지, 즉 자영업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 일련의 연구들은 자영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 여부, 가족의 배경, 직무만족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자영업 종사자의 개인적 특성이 근본적으로 임금근로자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보다 위험을 더 선호하거나 능력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보다 능력이 떨어져 기업에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오히려 자영업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택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이질적(heterogenous)인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주의 소득분포의 편차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더 크며,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도 집단내 편차가 크다(류재우, 2004). 따라서 평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고전적인 회귀분석(class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 자영업 집단의 소득분포와 소득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자영업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취업자의 소득분위별 분석이 가능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본 장의 분석에서는 최근 소득불평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모형 방법을 활용하여 종사상지위가 전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및 비임금근로자 내 성별 소득분포의 차이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 분석방법: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조건부 분위회귀분석(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면 개인의 이질적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전반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 모형에서의 추정결과는 유사집단의 소득분포 효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만 부여된다. 반면, Firpo et al.(2009)의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모형(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은 전체적인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분석에서와 같이,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변화가 무조건부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 분위별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여 소득불평등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모형은 특정 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무조건부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Firpo et. al.(2009)이 제안한 재중심 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이용한다. RIF는 종속변수 분포로부터 얻어지는 특정 통계량(예컨대, 분위수)에 대한 개별 관측의 영향을 나타내는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 IF)를 포함한다.

RIF를 활용하면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비임금근로자 비중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설명변수가 RIF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RIF-선형회귀모형이 설정된다.

$$RIF_{\tau, y_i} = \alpha_{\tau} + \beta_{\tau} X_i + \varepsilon_i \quad (6)$$

여기서 β_{τ} 는 설명변수 x 가 1단위 증가하면 무조건부 분위수 q 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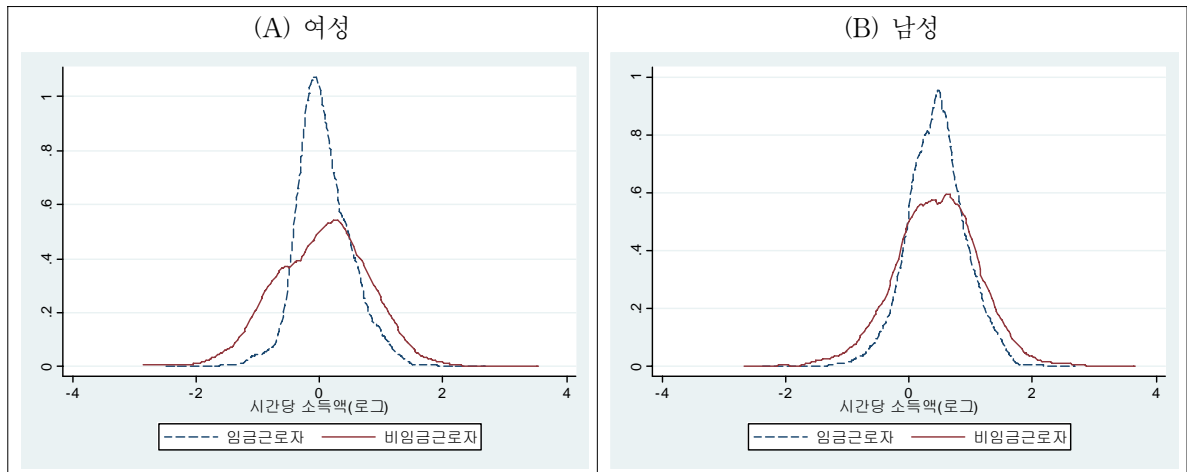
2. 분석자료

본 장의 분석에서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분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앞선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원자료 가운데 만 64세 이하의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취업자의 시간당 소득액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시간당 소득액은 KLIPS가 제공하는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월평균소득을 월근로시간(주당 근로시간 \times 4.3)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바,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여에 따른 소득배분을 고려하고자 한다. 예컨대, 가구내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액을 무급종사자수(자영업자 본인 포함)로 나눈 소득액을 가구내 무급가족종사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상의 시간당 소득액을 계산하였다. 소득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추정을 위해 사용된 통제변수들은 앞서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표 1> 참조)

이상의 변수들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총 표본수는 6,559명(남성 3,938명, 여성 2,621명)이다. 이 표본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제외되어 있는 바,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상의 소득액을 배분하여 분석에 포함하면 표본수가 6,844명(남성 3,993명, 여성 2,85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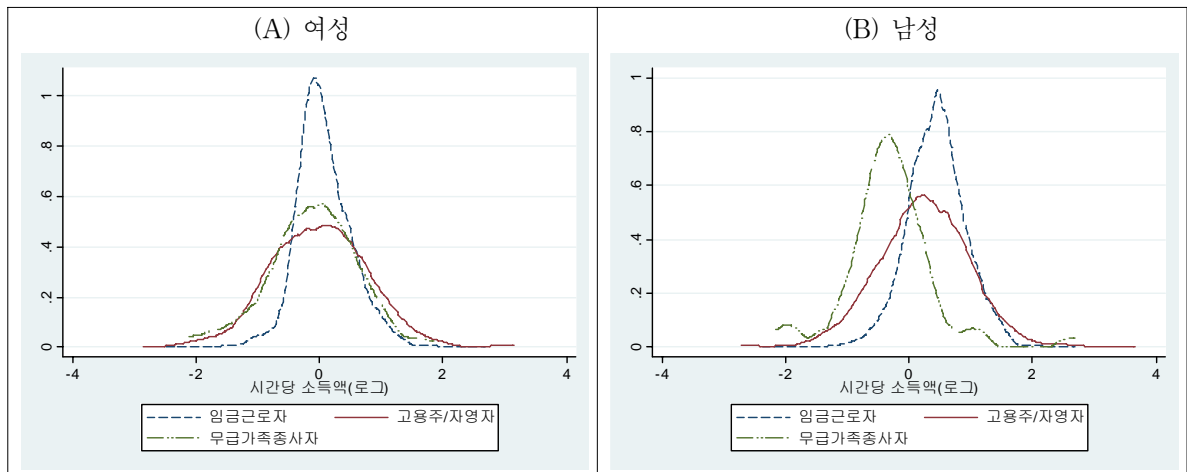
[그림 1]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시간당 소득액의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평균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에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정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성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1]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2] 종사상지위별 소득분포



주: 무급가족종사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가구내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월소득액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한 것을 월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2]는 종사상지위별 소득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가구내 자영업자의 소득을 무급종사자수로 나누어 배분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무급가족종사자에게 가상의 소득액을 배분한 후, 종사상지위별로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종사상지위별로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는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보다 좌측으로 이동 및 치우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자영업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보다 극명하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에 비해 상당히 저소득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근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분석결과

<표 6>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시간당 소득액 수준의 차이를 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분위별로 소득 수준의 차이가 다르게 추정되는 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성별로도 소득격차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에서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성과 달리 저소득층에서도 소득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수준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은 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낮고, 고소득층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과 더불어, 중위 수준의 소득 수준에서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 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미세하게 우측(고소득)으로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6>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임금=0, 비임금=1)	여성 (N=2,621명)	-0.355***	-0.049	0.115***	0.221***	0.244***
	남성 (N=3,938명)	-0.039	0.011	0.074***	0.151***	0.228***

주: 1)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년수, 자녀수, 월평균 생활비, 배우자 월소득, 산업, 직업, 근속년수 등을 활용함.(자세한 추정결과는 <부표 1>과 <부표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표 7>은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격차 수준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본 분석을 위해서 가구내 자영업자 소득을 활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가상적인) 소득을 배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이라는 결과는 동일

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크기의 정도는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상관없이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보다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소득배분을 하지 않은 분석결과와의 차이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가 하향조정(좌측으로 이동)됨으로써,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 보다 뚜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남성인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이 가구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에게 배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남성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분포 차이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여성 (N=2,851명)	고용주/자영자	-0.475***	-0.089***	0.061**	0.229***	0.284***
	무급가족종사자	-0.209**	-0.055	0.076*	0.078	0.079
남성 (N=3,993명)	고용주/자영자	-0.432***	-0.200***	-0.095***	0.029	0.088*
	무급가족종사자	-1.364***	-0.568***	-0.256***	-0.006	0.071

주: 1)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년수, 자녀수, 월평균 생활비, 배우자 월소득, 산업, 직업, 근속년수 등을 활용함.(자세한 추정결과는 <부표 3>과 <부표 4>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이상의 결과로부터,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구원간 근로의 형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바,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무급가족종사자가 노동시장에서 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소득은 가구내 다른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에게 귀속되며, 이로 인해 남성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수준이 노동 제공량 이상으로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가구내 자영업자의 소득을 가구내 무급가족종사자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에서의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반감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개인의 비임금근로 유형뿐만 아니라, 가구내 근로 유형의 조합 및 그에 따른 가구소득액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비임금근로의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그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를 소득분위별로 추정해보았다.

첫 번째로,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거주 지역 등이 있었으며, 산업 및 직업 등 일자리 관련 특성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근로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컨대, 여성 취업자가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연령과 거주 지역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생활비는 선택확률을 높이고, 배우자의 월소득은 선택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여성 취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확률을 월평균 생활비가 낮추고, 배우자의 월소득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업자 선택 구조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근로형태별로 지원수단 및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의 차이를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의 크기는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보다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구원간 근로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일 것인 바, 가구내 근로형태의 조합 및 그에 따른 가구소득총액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가구 단위의 근로형태의 조합에 따른 소득분포 및 소득격차 등은 분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의 동태적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후 다루어질 분석들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사 과정에서의 비임금근로의 결정유형, 가구 구성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분포 등이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김기승·조동훈·조준모(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2003),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근주·고영우·김영아·윤자영(2019),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발간예정)
- 김기승(2006),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8호, 국회예산정책처.
- 김복순(2014), 「자영업 고용 구조와 소득 실태」, 『월간 노동리뷰』 2014년 5월호(통권 110호): p.67-79.
- 류재우(2004),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와 선택성」, 『경제학연구』 52(2): p.5-32.
-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p.109-140.
- 문유경(2002),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한국인구학』 25(2): p.69-105.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p.161-182.
- 이상호·성재민·신선옥·이지은·윤미례·이혜정·박진(2014), 『제15차(2012)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 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p.149-179.
- 전용석·김두순(2004), 「비임금근로자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편 『한국의 고용구조, 2004』 중 제8장: p.263-293,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최강식·정진욱·정진화(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p.135-156.
- 최강식·정진화(2004), 「성별 소득격차의 분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 『경제학연구』 55(4): p.217-241.
- Fields, G. S.(1987), "Measuring Inequality Change in an Economy with Income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6(2): p.357-374.
- Firpo, S., N. M. Fortin, and T. Lemieux(2009),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3): p.953-973.
- Heckman, J.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p.153-161.
- Hundley, G.(2000), "Male/Female Earnings Differences in Self- Employment: The Effects of Marriage, Children, and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1): p.95-114.
- _____ (2001), "Domestic Division of Labor and Self/ Organizationally Employed Differences in Job Attitudes and Earning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2): p.121-139.

〈부표 1〉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여성(임금 Vs. 비임금)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액(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0.355***	-0.049	0.115***	0.221***	0.244***
연령		0.06	0.036	0.113***	0.207***	0.164**
연령제곱		0	0	-0.001***	-0.001***	0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055	0.059	-0.034	-0.215***	-0.421***
	전문대졸	-0.011	0.137*	0.091	-0.164*	-0.579***
	대졸이상	-0.117	0.137	0.132*	-0.076	-0.534***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051	-0.04	0.051	0.108	0.164
	이혼/사별	-0.025	-0.049	0.009	0.106	0.151*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3	-0.009	0.031	0.045	-0.001
	호남권	-0.062	-0.036	-0.065*	-0.024	-0.022
	대경권	-0.097*	-0.042	-0.035	-0.045	-0.032
	동남권	-0.011	-0.016	-0.01	0.024	-0.044
	강원제주권	-0.036	0.051	0.091*	-0.08	-0.295***
잠재경력년수		-0.031	-0.004	-0.052***	-0.123***	-0.144***
잠재경력년수 제곱		0	0	0.000***	0.001***	0
6세미만 자녀수		-0.097**	-0.029	0.009	-0.022	-0.105
6~18세 자녀수		-0.045**	-0.042***	-0.022	-0.001	0.015
월평균 생활비		0.075***	0.045***	0.038***	0.080***	0.124***
배우자 월소득		0.004	0.002	-0.012**	-0.006	0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1.330***	0.515***	0.229***	0.279***	0.199*
	유통서비스	1.182***	0.379***	0.160**	0.242**	0.139
	생산자서비스	1.357***	0.490***	0.340***	0.362***	0.315**
	사회서비스	1.327***	0.508***	0.297***	0.238**	0.112
	개인서비스	1.246***	0.355***	0.170**	0.205**	0.113
	기타	1.375***	0.576***	0.438***	0.396***	0.15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0.009	0.049**	0.048*	-0.031	-0.122*
	서비스/판매직	-0.139***	-0.171***	-0.147***	-0.180***	-0.177***
	생산직	-0.142*	-0.202***	-0.173***	-0.342***	-0.348***
	단순노무직	-0.093	-0.217***	-0.208***	-0.210***	-0.155**
근속년수		0	0.003**	0.016***	0.037***	0.043***
근속년수 제곱		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3.120***	-1.894***	-3.928***	-7.479***	-7.109***
결정계수(Pseudo R2)		0.185	0.213	0.314	0.306	0.199
표본수		2,621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2〉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남성(임금 Vs. 비임금)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액(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0.039	0.011	0.074***	0.151***	0.228***
연령		0.125***	0.128***	0.097***	-0.009	-0.01
연령제곱		-0.002***	-0.002***	-0.001***	0.000*	0.001**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420***	0.222***	0.113**	-0.077	-0.252***
	전문대졸	0.494***	0.335***	0.146***	-0.078	-0.369***
	대졸이상	0.521***	0.350***	0.193***	0.028	-0.301**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341***	0.301***	0.342***	0.274***	0.225***
	이혼/사별	0.059	0.179***	0.167***	0.094**	0.03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11	0.003	0.001	0.016	-0.04
	호남권	-0.012	-0.02	-0.018	0.058	0.104*
	대경권	-0.064	-0.059**	-0.019	-0.021	-0.048
	동남권	0.126***	0.037*	0.014	0.014	-0.023
	강원제주권	0.006	-0.067	-0.089*	-0.130**	-0.157**
잠재경력년수		-0.02	-0.022	-0.028**	0.007	-0.011
잠재경력년수 제곱		0.001	0.001***	0	-0.001***	-0.001***
6세미만 자녀수		-0.045*	-0.044**	-0.011	-0.056**	-0.119***
6~18세 자녀수		-0.023	-0.007	0.028**	0.037**	0.015
월평균 생활비		0.154***	0.106***	0.114***	0.179***	0.237***
배우자 월소득		-0.021***	-0.013***	-0.017***	-0.031***	-0.033***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0.572***	0.342***	0.149***	0.202***	0.310***
	유통서비스	0.380***	0.200***	0.038	0.023	0.084
	생산자서비스	0.475***	0.326***	0.188***	0.200***	0.278***
	사회서비스	0.437***	0.301***	0.127**	0.086	0.046
	개인서비스	0.192	0.093	-0.032	0.002	0.04
	기타	0.666***	0.407***	0.234***	0.177***	0.199**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0.043	0.008	0.009	-0.100***	-0.117**
	서비스/판매직	-0.160***	-0.094***	-0.123***	-0.130***	-0.173***
	생산직	-0.015	-0.069***	-0.143***	-0.219***	-0.294***
	단순노무직	-0.273***	-0.220***	-0.277***	-0.265***	-0.278***
근속년수		0.010***	0.012***	0.016***	0.022***	0.022***
근속년수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5.171***	-4.646***	-4.030***	-2.647***	-2.531***
결정계수(Pseudo R2)		0.165	0.274	0.329	0.275	0.189
표본수		3,938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3〉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여성(임금 Vs. 자영업자/가족종사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액(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		-0.475***	-0.089***	0.061**	0.229***	0.284***
무급가족종사자		-0.209**	-0.055	0.076*	0.078	0.079
연령		-0.016	0.012	0.092***	0.205***	0.172**
연령제곱		0.001	0	-0.001***	-0.001***	0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029	0.08	-0.017	-0.256***	-0.424***
	전문대졸	-0.002	0.167**	0.120*	-0.181**	-0.519***
	대졸이상	-0.077	0.184**	0.174**	-0.124	-0.481**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183**	-0.149***	-0.072	-0.01	0.046
	이혼/사별	-0.027	-0.052	0.004	0.103	0.169*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96	-0.048	-0.003	0.034	-0.061
	호남권	-0.114*	-0.051	-0.078**	-0.021	0.014
	대경권	-0.111*	-0.022	-0.017	-0.006	0.009
	동남권	0.038	-0.021	-0.016	0.021	-0.056
	강원제주권	-0.122	-0.055	-0.002	-0.186**	-0.351***
잠재경력년수		0.01	0.008	-0.043***	-0.125***	-0.147***
잠재경력년수 제곱		-0.001**	0	0.000*	0.001***	0
6세미만 자녀수		-0.094**	-0.037	0.002	-0.041	-0.123*
6~18세 자녀수		-0.036	-0.035**	-0.016	0.003	0.025
월평균 생활비		0.075***	0.056***	0.045***	0.098***	0.151***
배우자 월소득		0.028**	0.024***	0.013**	0.018**	0.025*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0.758***	0.238***	0.102	0.078	0.151
	유통서비스	0.656***	0.107	-0.013	0.028	0.005
	생산자서비스	0.804***	0.218***	0.160**	0.174*	0.229*
	사회서비스	0.799***	0.238***	0.134*	0.036	-0.025
	개인서비스	0.665***	0.063	-0.031	-0.02	-0.013
	기타	0.828***	0.310***	0.277***	0.232*	0.157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0.019	0.056***	0.062**	-0.006	-0.119*
	서비스/판매직	-0.06	-0.135***	-0.105***	-0.154***	-0.142*
	생산직	-0.078	-0.175***	-0.175***	-0.315***	-0.373***
	단순노무직	-0.09	-0.180***	-0.148***	-0.162***	-0.1
근속년수		-0.001	0.002*	0.013***	0.029***	0.033***
근속년수 제곱		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1.282	-1.238***	-3.222***	-6.666***	-6.401***
결정계수(Pseudo R2)		0.177	0.215	0.288	0.277	0.17
표본수		2,851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

〈부표 4〉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남성(임금 Vs. 자영업자/가족종사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액(로그 만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		-0.432***	-0.200***	-0.095***	0.029	0.088*
무급가족종사자		-1.364***	-0.568***	-0.256***	-0.006	0.071
연령		0.07	0.128***	0.111***	-0.013	-0.024
연령제곱		-0.001*	-0.002***	-0.001***	0	0.001***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438***	0.235***	0.101**	-0.066	-0.279***
	전문대졸	0.509***	0.376***	0.135**	-0.058	-0.383***
	대졸이상	0.571***	0.419***	0.189***	0.09	-0.332**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187***	0.272***	0.303***	0.232***	0.171***
	이혼/사별	0.081	0.192***	0.196***	0.100**	0.021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4	-0.003	-0.017	0.008	-0.05
	호남권	0.074	-0.011	0	0.015	0.079
	대경권	-0.029	-0.046	-0.036	-0.029	-0.079*
	동남권	0.090**	0.039	0.040*	0	-0.039
	강원제주권	-0.091	-0.122*	-0.096*	-0.158***	-0.178**
잠재경력년수		-0.006	-0.016	-0.029**	0.016	-0.003
잠재경력년수 제곱		0	0.001**	0.000*	-0.001***	-0.001***
6세미만 자녀수		-0.046	-0.061***	-0.032	-0.032	-0.097***
6~18세 자녀수		0.027	-0.009	0.022*	0.049***	0.027
월평균 생활비		0.152***	0.117***	0.104***	0.159***	0.231***
배우자 월소득		0.003	-0.003	-0.007*	-0.020***	-0.022***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0.943***	0.494***	0.338***	0.303***	0.327***
	유통서비스	0.903***	0.383***	0.257***	0.152***	0.104
	생산자서비스	0.919***	0.503***	0.373***	0.309***	0.316***
	사회서비스	0.789***	0.455***	0.310***	0.212***	0.051
	개인서비스	0.521***	0.192**	0.131**	0.09	0.027
	기타	1.064***	0.580***	0.441***	0.296***	0.207**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0.093**	0.039	0.009	-0.103***	-0.132**
	서비스/판매직	-0.134*	-0.107***	-0.153***	-0.185***	-0.237***
	생산직	0.112**	-0.006	-0.138***	-0.220***	-0.312***
	단순노무직	-0.148*	-0.259***	-0.299***	-0.291***	-0.314***
근속년수		0.005*	0.010***	0.014***	0.022***	0.024***
근속년수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4.206***	-4.660***	-4.180***	-2.578***	-2.409***
결정계수(Pseudo R2)		0.191	0.281	0.319	0.272	0.172
표본수		3,993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년도(2018년) 학술대회용 자료.